

이강소의 세라믹 작품에 관하여

1970년대 초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혹은 프로세스적인 작업에 몰두했던 나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전통적인 평면 회화나 입체 조각의 형식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75년으로부터는 평면 회화, 80년으로부터는 입체적인 조각을 병행하여 지금까지 실험해 오고 있다.

회화에서의 나의 작업이 기쁨이나 노여움, 슬픔이나 즐거움이 내 마음에서 작용하지 않는 상태, 즉 무심의 상황, 모든 신체나 정신이 주위와 더불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캔버스 위에 붓으로 제스처를 행해 왔다.

그리고 조각에서도 같은 시도를 계속해 왔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흙이 조각의 재료 가운데 하나로 이용되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흙덩이를 내가 회화에서 해 왔던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허공에 던져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무작위로 던져 온 이 작업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들 사이의 느낌이 달라져 나는 여기에서 어떤 언어로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차이를 느낀다. 던져진 작업들이 어떤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서도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넓고 넓은 세계와의 관련도 있겠지만 말이다.

80년대부터 2003년까지는 흙덩이가 수분이 증발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Plaster나, Bronze, Iron Casting으로 제작해 왔으나, 그 후 두터운 흙덩이라도 그대로 말려서 Ceramic의 기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쉽게 자유자재로 흙덩이를 던져서 작업을 해 오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흙은 주로 한국의 지방(산청, 경주)에서 나온 흙, 백자 제작을 위한 점토, 그리고 가끔씩은 중국에서 생산된 Ball Clay, Kaolin, Chamotte 등을 섞어 쓰기도 한다.

경주 흙은 흔히 한국의 독(큰 항아리)이나 벽돌 제작에 쓰이는 흔한 재료다. 이것을 섭씨 1050도로 소성하면 테라코타의 붉은 색으로 되고, 그 이상 열을 높이면 초콜릿 색으로 변한다. 산청에서 생산된 흙은 섭씨 1230도의 열을 30~35시간 동안 구우면, 자연 상태의 흙의 색채(Yellow Ochre)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전통적인 백자의 흙을 작업하고 말린 다음 유약(투명 혹은 반투명)을 처리하고 섭씨 1230~70도로 30~35시간 동안 소성하면 백색의 백자색을 띄게 된다.

이러한 세라믹 작업은 일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용기와 같은 강도와 성질을 갖고 있어서 물에도 내성이 강하다. 그리고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주면 좋지 않다.

다만 흠덩이와 흠덩이 사이의 접착이 완벽하게 접착되지 않아서 분리된 부분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래 대로 접착하였으나, 운반 도중 충격이나 사고에 의해 분리되었을 경우, 석재용 접착제, 혹은 세라믹 접착제를 이용하여 원래의 장소에 접착하여 고정시키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된다. 이 경우 작가가 보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다.

26. March. 2016.

Lee Kang-So.